



즉시 배포용: 2021년 1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화이자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ALBERT BOURLA에게 직접 뉴욕주의
코로나19 백신 구매 요청 서한 발행**

백신 수요가 연방정부의 공급을 큰 폭으로 앞질러

**CDC, 백신에 대한 적격성을 대폭 확대
7백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을 위한 소량의 백신 확보**

서신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화이자(Pfizer)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Albert Bourla 박사에게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화이자는 모더나(Moderna)가 만든 워프 스피드 작전(Operation Warp Speed)의 규약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화이자로부터 직접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해당 서신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부르라 박사님께,

모든 뉴욕 주민들을 대신하여, 저는 화이자와 바이오테크(BionTech) 팀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은 유난히 어두웠지만, 여러분의 노력이 터널 끝에 밝은 빛을 전해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백신들이 마침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무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 전국에서 입원과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주민들에 대한 투여량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다른 7명의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더 많은 양의 백신을 반출하라고 촉구한 후, Alex Azar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이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방 정부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뉴욕은 이번 주에 지난주보다 5만이 적은 25만 분량만 투여하게 될 것입니다.

화이자는 모더나가 만든 워프 스피드 작전에 의한 규약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뉴욕주에서 직접 선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합니다. 화이자에서 직접 얻은 백신 선량의 배포는 주 정부가 수립한 엄격한 지침을 따를 것이며, 이는 저희가 퇴임하는

연방 행정부에 의해 이번 주에 발생한 투여량의 격차를 메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한 빨리 뉴욕인의 70~90%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는 저희의 목표를 도울 것입니다.

박사님께서 뉴욕과 다른 주들이 직면해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하룻밤 사이에 뉴욕 주민에 대한 백신 접종 대상을 5백만 명에서 7백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연방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저희의 백신 공급을 줄이면서 수문을 열어 저희에게 혼란과 좌절을 주며 희망을 꺾었습니다.

화이자 는 뉴욕 회사입니다. 저는 이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비할 예정인 워프 스피드 작전에서 손을 떼기로 한 회사의 결정이 바로 여기 뉴욕에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독특한 상황에 놓이게 했습니다. 이 문제를 박사님과 함께 논의할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